

# 쇼호스트·과학해설사까지... AI 가상인간 활동 '종횡무진'

## AI 가상인간 경쟁 2라운드

마인즈랩 과학커뮤니케이터 '다운' 국립중앙과학관에 해설사로 공급

클레온 남성 버추얼 휴먼 '우주' SNS에 학생증사진 올리며 활동

클레온 AI 가상인간 '키오스크' 외국인에 3개국어 서비스 제공



마인즈랩이 개발한 AI 과학해설사 '다운'. /마인즈랩

인공지능(AI) 버추얼 휴먼이 게임 캐릭터, 쇼호스트, 과학해설사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며 AI 가상인간 경쟁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

롯데홈쇼핑은 AI 가상인간 '루시'를 개발해 광고모델은 물론 쇼호스트에 진출시킬 계획이며, 스마일게이트는 AI 게임 주인공을 개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 클레온은 남성 버추얼 휴먼을 공개했으며, 마인즈랩은 AI 과학해설사를 새롭게 출시했고, 펠스나인은 AI 아이돌 '이더니티'의 2번째 활동으로 멤버 개인 신곡을 내놓고 활동에 돌입했다.

AI 버추얼 휴먼은 출시 초반에는 국내에서 AI 아나운서의 형태로 서비스됐지만, 이후 AI 아이돌을 비롯해 AI 튜터, AI 음악감독 등 각 분야에서 다양한 전문 영역을 만들어내고 있다.

AI 플랫폼 기업인 마인즈랩은 최근 AI 버추얼 휴먼 'M1'을 선보인 데 이어, 이번에는 국내 최초의 AI 과학커뮤

니케이터 '다운'을 개발했다. 마인즈랩은 다운을 국립중앙과학관의 온라인 특별전 '인공지능과 예술'에 명예 해설사로 공급했다.

다운은 AI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어린이, 청소년, 일반인 모두 전시를 즐길 수 있도록 관람객들과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하도록 AI 첨단 언어지능 기술을 적용했다. 다운의 제작에는 SO TA(State of the art; 최첨단 수준) 알고리즘 기반 립싱크 기술(Wav2Lip)과 딥러닝 음성생성 알고리즘(Hi-Fi GAN)의 음성생성(TTS) 기술이 적용됐다. 이는 마인즈랩의 자체 기술로 개발한 AI 엔진들로, 마인즈랩은 실존 인물이 아닌 가상의 3D 캐릭터인 다운에 이를 적용했다.

이번 전시를 통해 다운은 관람객들에게 AI 체험 콘텐츠 4종 및 국내 전문 예술작가 8인의 대표 작품을 소개할 예정이다.



펠스나인의 AI 걸그룹 '이더니티' 중 다인. /펠스나인

AI 딥러닝 영상생성기업인 클레온은 남성 버추얼 휴먼 '우주'를 내놓고 그의 인스타그램에 학생증 사진을 업로드하며 활동을 시작했다.

우주는 클레온의 딥러닝 기술로 구현된 가상 인간으로, 여러 얼굴을 섞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가상 얼굴을 만든 것이다. 우주는 2001년생 올해 21살로, 카멜로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다. 그동안 버추얼 인플루언서들은 셀럽, 아이돌과 같은 '인싸' 성향을 가지고 있었지만 우주는 친구 같은 친근한 모습으로 대중들을 만나고 있다.

클레온은 또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3개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AI 가상인간 키오스크를 선보였다. 'AI 가상인간 키오스크'는 클레온의 AI 버추얼 챗봇 서비스인 '클론'과 키오스크를 결합해 만들어진 것으로, 한국어, 중국어, 영어 세 가지 언어로 제공한다. 카지노를 방



롯데홈쇼핑이 자체 개발한 AI 버추얼 휴먼 '루시'. /롯데홈쇼핑

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게임업체인 스마일게이트는 자체 개발한 VR(가상현실) 게임 포커스온유리의 주인공인 AI 가상인간 '한유아'를 최근 선보였다.

스마일게이트가 자이언트스텝과 공동 개발해 지난 8월 선보인 한유아는 자체 기술인 리얼타임 엔진기술 기반 실시간 콘텐츠 솔루션을 통해 화보, 영상, 광고, 공연 등 다양한 콘텐츠에 기술을 적용했다.

스마일게이트는 최근 버추얼 휴먼 한유아를 국제구호개발 NGO 희망친구기아대책 홍보대사에 위촉했다. 이 회사는 또 올해 말까지 한유아를 연기, 음반 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활동을 추진하고 유명 브랜드와 콜라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AI 그래픽 전문기업 펠스나인은 지난 3월 국내 최초의 AI 걸그룹 '이더니

티'를 공개하고 첫 뮤직비디오 '아임리얼'을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데 이어 최근 멤버 다인의 솔로곡 '노필터'도 발표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펠스나인 관계자는 "노필터를 단체곡으로 발매할까도 했지만 해외에서 집중이 많이 되면서 출시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솔로곡으로 음원을 냈다"며 "충청인공지능주간에 이더니티의 다인이 참여해 '노필터' 뮤직비디오를 공개했으며, 인사영상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모바일 게임 제작사인 넷툰은 지난해 11월 온마인드를 자회사로 편입한 데 이어 지난 8월에는 디지털 아이돌을 키우는 AI 기업 딥스튜디오와 펠스나인 지분을 사들였다.

온마인드는 유니티코리아 홍보대사로 활약한 적이 있는 유니티 엔진을 제작한 버추얼 휴먼 '수아'를 보유하고 있다. 또 딥스튜디오는 가상 인간 정세진을 연습생으로 뒀는데, 아직 정식으로 데뷔하지는 않았다.

롯데홈쇼핑은 자체 개발한 AI 버추얼 휴먼 '루시'를 '대한민국 광클질'의 세 번째 홍보 모델로 발탁해 화제를 모았다.

루시는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며 얼굴을 알리고 있으며 AI 기반 음성 표현 기술을 적용하는 등 실제 사람과 유사한 수준까지 고도화했다. 향후 쇼호스트 등으로 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채윤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 SK이노 울산CLX, '친환경 그린' 방식 전환

폐기물·폐수 줄여 환경문제 해결 탱크 플레이트 샌딩 폐기물 최소화

SK이노베이션이 울산 공장을 깨끗하게 만든다.

SK이노베이션은 울산컴플렉스(울산CLX)를 '친환경 그린' 방식으로 전환했다고 7일 밝혔다.

기계와 장치, 배관 등 공장 운영 시설에 그린 정비작업을 추진한 것. 폐기물과 폐수를 줄여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함이다.

먼저 울산CLX는 정비 작업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했다. 탱크 플레이트의 샌딩 시 발생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회전 기계 부품 교체에는 친환경 제품을 사용했다. 또 올해 상반기 원유저장

지역 탱크 정기 개방 검사에서는 수명이 다한 플레이트 교체 작업중에 발생한 기존의 폐오일샌드를 폐기물로 처리하지 않고 재활용하여 산업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도 했다.

철거된 설비도 재사용한다. 교육 훈련을 위한 보조재료(교보재)로 이용하고, 정기보수 시 각종 열교환기 등의 물청소에 사용된 용수를 임시 회수 처리기를 활용해 80% 이상 다시 사용한다.

탱크와 배관 등의 보존재로 사용되는 펄라이트도 재활용한다. 울산CLX는 공장 설비의 파이프 표면에서 기존 보존재(펄라이트)는 정기적으로 교체해야 하는데, 교체한 펄라이트에서 상태가 양호한 것을 별도로 분리수거하고

전문 가공 업체에서 재가공하여 보존재로 재사용했다.

그 밖에도 정비 작업 수행 시 사용되는 전기 및 발전기 사용을 혁신해 오염물질 발생을 획기적으로 저감하는 성과도 냈다. 소음이 심하고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이동용 발전기 대신 상용 전기를 공급하도록 설비를 개선한 것. 상반기 원유저장지역 탱크 정기 개방검사에서도 상용전기를 사용해 '클린 에어' 추진에 기여하기도 했다.

SK이노베이션 울산CLX 측은 "클린 CLX'를 만들며 동시에 SK이노베이션이 선언한 '그린 트랜스포메이션' 완성을 향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

## LG 올레드, 14개국 TV 성능평가 '1위'

'에보' 유럽 7개국서 '최고점수'

LG 올레드 TV가 연말 글로벌 시장에서도 찬사를 받고 있다.

LG전자는 최근 14개국 소비자 매체 TV 성능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7일 밝혔다. LG 올레드 에보는 유럽 7개국 소비자 매체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다.

프랑스 크슈아지르는 LG 올레드 에보에 26개 제품 중 최고점인 16.2점을 줬다. "LCD TV에서는 볼 수 없는 명암비로 놀랍도록 세밀한 이미지를 구현한다"며 호평했다. 올레드 에보를 포함한 LG 올레드 TV 9개 제품이 상위권을 휩쓸었다.

덴마크 탱크도 최고 평점 80점을 부여하며 "뛰어난 색상, 훌륭한 명암비와



사운드 등 좋은 TV가 갖춰야 할 모든 것을 갖췄다"며 최고 평점인 80점을 부여했다.

미국 BGR도 '최고의 TV' 중 '최고 TV'로 올레드 에보를 꼽았다. "TV로 무엇을 시청하더라도 최고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극찬하며 "TV에서 기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김재용 기자

## kt NexR, 개인정보 비식별화 솔루션 출시

'NEA' 주민번호 등 익명·가명 처리

빅데이터 전문기업 kt NexR이 개인정보 비식별화 솔루션 'NEA(NexR Enterprise Anonymous)'를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NEA'는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익명·가명 처리를 통해 비식별 정보로 변환시켜주는 개인정보 비식별화 솔루션이다.

작년 1월 데이터 3법의 통과로 가명화된 데이터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빅데이터 비식별화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NEA'는 정확하고 신속한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능을 제공해 기업들의 유연한 빅데이터 활용을 돕는다.

'NEA'는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17가지 비식별 기법과 개인정보 노출을 위험을 정량적으로

평가한 프라이버시 모델(K-익명성, L-다양성, T-근접성)을 모두 지원한다. 가명 처리 및 가명 처리 후 비식별 적정성을 평가해 자동 검증하고 미흡 사항 발생 시 추가 조치도 수행한다.

특히 'NEA'는 넥스알이 약 15년 간 쌓아온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기술 및 경험을 활용해 쿠버네티스 기반의 클라우드 환경에서 최적화 된 기능과 성능을 제공한다. 또 주기억장치에 데이터 베이스를 저장하는 인메모리 기술을 적용해 보다 빠른 비식별 처리가 가능하다.

/채윤정 기자

## LGU+, 생물 다양성 보전 사회공헌 실시

NGO와 맞춘 '개구리 사다리' 설치

LG유플러스가 비영리단체(NGO)와 손잡고 국내 멸종 위기종 보호 및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다고 7일 밝혔다.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진행하는 이번 활동은 농수로에 빠진 멸종 위기종 양서류가 스스로 탈출할 수 있도록 사다리를 만들어 설치하는 내용이다. 농수로는 눈에 물을 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깊고 미끄러운 탓에 양서류를 비롯한 생물이 빠질 경우, 탈출이 어려워 생물 다양성을 위협하는 시설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와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가 선정한 멸종 위기종이 다수 서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농수로에 '개구리 사다리'를 설치하는 활동을 펼쳤다. 개구리 사다리는 시멘트 농수로에 빠진 뒤 벽을 기어오르지 못해 결국 죽음을 맞는 수백 수천 마리의 개구리를 구하기 위해 고안된 장치다. /채윤정 기자